

편의점 부가세까지 왜 본사가 관리합니까?

“본사가 매출 전체 관리하며 6개월간 수 천억 보유” 의혹 제기 점주들, 운영난에 폐업도...경실련, 오늘 갑질 고발 기자회견 본사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충분한 검토 기간 등 제공했다”

광주지역 일부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주가 부가가치세를 점주가 아닌 본사가 관리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문제삼고 나섰다.

본사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자 수입 등을 챙기고, 납세 후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분을 점주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업계의 계약형태에 대한 반발이다.

2022년 12월부터 2년여간 광주시 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는 최근 적자를 면치 못해 폐업을 결정했다.

A씨는 매일 매출액 전액을 본사에 송금하면, 부가세 10%를 제외한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본사로부터 900여만원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했다. 이 돈으로 임대·전기료 등 600만원 내고 나면

고작 300만원만 남는데다 인건비까지 감당하다보니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

A씨는 “본사에서 편의점의 모든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일송금제’를 계약에 포함시켜 점주가 관리해야 할 부가세까지 본사에 올려보내면서 적자가 악화됐다”면서 “본사는 전국 점포에서 받은 수천억원의 부가세를 반기별 부가세 신고 전까지 6개월간 보유하면서 이자 등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사가 ‘채무 이행 불성실’을 이유로 부가세 환급금을 점주 동의 없이 점주의 채권 상환액으로 써 버리는 등 임의대로 부가세 환급금을 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에 허덕이는 점주들은 부가세 만큼이라도 점

주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컨대, 월 3000여만원 매출을 올리면 부가세는 300만원 수준인데, 이를 점주가 관리하면 최소한 납세 전까지 점포 임대료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편의점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업계가 관행을 핑계로 부가세 뿐 아니라 비싼 로열티 등을 점주에게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편의점 업계의 로열티는 매출의 35.6% 수준으로, 일반 프랜차이즈 업계(3~5% 수준)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발주 시 상품 원가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기존 로열티보다 더 많은 돈을 점주에게 뜯어내고 있다는 게 점주들의 전언이다.

송지현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편의점 업계는 점주들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본사 수익만 챙기는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돼 있다”며 “편의점은 ‘생계형 창업’인만큼, 점주

들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저 수익 보장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업계의 본사 수익위주 행태는 폐점 점포 증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4개 편의점 업체 중 중도해지 폐점 점포 수는 2019년 1063곳, 2020년 1139곳, 2021년 1450곳, 2022년 1604곳, 2023년 1740곳, 올해 6월까지 1040곳 등이다.

점주가 부담하는 평균해지비용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 회사의 평균 해지비용은 2020년에 비해 올해(6월 기준 6549만원) 2.5배 늘었으며, 다른 회사는 2020년 3200만원에서 올해 6월 5500만원으로 뛰었다. 나머지 두 회사도 2020년 각각 2368만원, 2355만원에서 2024년 2898만원, 3153만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2022년 6~12월 편의점을 운영한 B씨는 “월 500여만원에 달하는 적자 때문에 6개월만에 폐업했다. 상품 발주 시 원가가 비싸 마진을 내기 어려웠다”면서 “폐업 결정 이후 본사로부터 1

억여원의 폐업 비용을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분쟁 조정 중이다.

A·B씨가 운영한 편의점의 본사 측은 “부가세를 포함한 일 매출 송금과 위약금 등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며, 충분한 검토 기간과 안내, 확인 시간을 줬서 경영주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 금액이 매출 금액보다 커 환급금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매 분기마다 점주에게 정량하게 환급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갑질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부가세를 본사가 갖고 있으며 점주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의 원리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는 취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성남 민심 외면말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 공공비축미 800kg 50포대를 쌓고 쌀 수입 중단과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올 첫 ‘얼음’ 관측...20일부터 평년 기온 회복할 듯

주말 다시 영하권 추위 예상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광주에서 올해 첫 얼음이 관측됐다.

하루 새 10도 가량 떨어졌던 강추위는 20일부터 차츰 누그러져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광주지방기상청 관측소에서

첫얼음이 확인됐다. 이는 평년(1991~2020년)보다 8일 늦은 것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날(11월18일) 첫얼음이 관측된 바 있다.

기상청은 대륙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광주·전남에 찬공기가 대거 유입돼 바람까지 강하게 분타오로 분석했다.

영하권 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2~6도·낮 최고기온은 12~15도에 분포하겠다.

20일부터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평년 기온(최저 1~7도, 최고 13~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회복하겠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 사이 다시 기온이 떨어져 영하권의 추위가 물러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년과 기온차가 크게 낮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져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남교육청, 전국 첫 ‘산재 휴직자’ 지원 법제화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지원금

전남교육청이 산재 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재 휴직자 지원 방안’을 취업규칙으로 법제화했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자의 최초 1년 동안은 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지원을 추가해 휴직 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산재 휴직자의 임금 보전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

액을 산정해 기존 임금 대비 20% 가량 상향된 금액을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강화됐다.

산재 휴직자는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했다”며 “근로자 권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삼호 하청업체, 노조 간부 고용승계 거부 부당”

전남지방노동위 결정

HD현대삼호의 하청업체가 고용승계시 노조 간부 2명만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달 15일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해 HD현대삼호 하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HD현대삼호가 이들에 대해 출입을 저지·제한 하는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HD현대삼호의 사내하청인 A업체는 지난 5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통보를 했다. A업체 노동

자들은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을 제외하고 B하청업체로 모두 고용승계됐다.

이에 노조 간부 2명은 부당하고·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삼호는 두 노동자에 대해 원직복직시키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HD현대삼호측은 “폐업과 채용은 하청 사업주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며 노동자 채용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으로 원청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서 “지노위의 결정을 존중해 이들에 대한 출입은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11월호

2024년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익어가 는 우리 숲의 매력

특집

- 청년 양조인들의 도전 참신해진 ‘남도 전통주’
- 남도 전통주는 어떤 술이 있나
- 자존심으로 최고를 빛는 막걸리 장인들
- 호남 최초 전통주 복합문화공간 ‘요담엔’

장성 여행

맛과 함께

황룡강변 하늘숲길 애기단풍

기획-지금은 아트페어 시대

키아프·프리즈 서울을 가다
동시대 세계·한국 미술을 만나는 장

‘아트:광주:24’가 남긴 것
관람객 2만 5000여 명 발길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②
용접기 든 재미 조각가, 존 배

예향 초대석

과학과 대중 이어주는 과학커뮤니케이터

이정모

“자연사에 인류 지속가능의 답이 있어요”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고요함으로 향하길 전년의 사찰

문화 화제

광주 출신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미

호남의 누정@-광주 아문당

조선 선비 은일의 미학 품은 정자

한국의 예술가들

월간 <예향> 창간 40주년 마흔네 퀘적 담은 아카이브전